

북한 사회주의 이행의 근대성과 일상의 변동

1960년대 지역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한성훈(연세대학교 역사와공간연구소)

이 글은 1950~1960년대 북한 인민들이 겪은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사회주의 삶의 방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광복 이후 북한 정부 수립과 사회주의체제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성의 양식으로 그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과학원에서 수차례에 걸친 조사 내용을 묶어서 발행한 민속자료는 인민들의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현지 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일상생활 속에 나타난 근대성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근대로부터 자유·해방이라는 측면과 사회주의체제 이행 과정에 종속적이라는 양면성, 둘째, 전근대와 근대의 차별성 못지않게 연속되는 생활의 중첩성, 셋째, 소련의 근대를 좇아 따라가려고 한 모방성과 민족의 특징을 강조한 민속성으로 볼 수 있다. 구성원 호상간의 권리관계는 여성의 경우 가정 내 권리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확대되어 갔으며, 결혼·재혼·이혼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관계에서 남자와 수평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제례에서 과거의 유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토지개혁과 문맹퇴치 등으로 미신을 타파하고 합리적 이성으로 풍습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근대 이행에서 과학적인 교육은 정신 혁명의 하나로써 북한 사회주의에서 정치사상교양의 출발점이었다.

주제어: 일상생활, 사회주의 근대성, 사회변동, 민속, 다종의 근대

1. 머리말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 전까지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근대적 구성이었다. 국가를 정립하고 정치체제를 갖추면서 그 성원을 조직하는 기획이었고, 남북한 정부 수립과 구성원의 일상생활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바꿔 말해 남한 자본주의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인민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전개된 것이다. 근대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삶의 규칙을 바꾸지 못할 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근대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역사가 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행위를 들추어내어 재구성할 때 가능하다. 여태까지 생활에 관한 기술은 미시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정치사회적으로 일상은 사소하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사람들의 행위가 축적되는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의미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하는 것은 연구자의 의지다. 사회변동의 미세한 움직임은 무심히 반복되는 일상에 내재해 있을 수 있다. 학계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생활과 문화, 미시와 일상에 대한 영역을 새로운 연구 분야로 개척했다. 변화가 시작하는 일상생활은 어떤 정치체제 형성 과정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일상은 인간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사실 일상이 아닌 것이 없지만 혁명과 사회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기록을 통해 드러난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역사를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일상은 보통 사람의 내면세계로 떠나는 생활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서 역사적으로 개념화된 시간과 공간, 근대적 영역으로서 일상이라는 삶이 펼쳐지는 시공간은 국가권력과 관계에서 종속되는 곳이자 이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해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시민) 사회의 형성은 바로 국가와 개인, 북한에서 이는 국가(당·군대)와 개인(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압과 선택, 또는 저항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구조적 강제와 개인의 자율적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공간에서 일상의 사회주의화가 시작되었다.

이 글은 1950~1960년대 북한 사회사에 대한 연구로서 인민들이 겪은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사회주의 삶의 방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식민지 해방 이후 북한 정부 수립과 사회주의체제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성의 양식으로서 삶, 일상생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논문은 북한이 추구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현지 조사 자료를 통해서 포착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논점은 일상의 행위들이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근대성을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 인민들의 구체적인 민속과 생활을 분석해서 근대성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일상적 변화에 초점을 둬으로써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변동의 실체에 대해 접근해보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내적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이 글은 민속자료에 나타난 유습의 변화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근대를 분석한다.

2. 조사 자료와 역사과학으로서 민속학

이 글에서 다루는 1차 자료는 북한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에서

조사한 지역 조사 자료이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까지, 해방 이후부터 변화한 인민들의 사회주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이때 조사한 자료는 이전에 조사한 자료들과 함께 정리되어 2006년 출간되었다.¹⁾ 이 자료는 무속과 지역 조사, 출간 자료, 집필 원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원에서 1949년 5월부터 1968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조사 내용을 묶어서 발행한 것이다. 북한 인민의 민속에 관한 지역 조사는 ‘의식주와 일상생활’, ‘관혼상제와 민간극’, ‘어로·수렵’, ‘천생산’, ‘광업’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지역 조사는 북한 민속학의 기초를 놓은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소속의 전장석, 김일출, 황철산 등의 학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 자료 중에서 논문은 ‘의식주와 일상생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조사자가 마을 현지를 방문해서 담화자(대상자)와 일일이 문답을 나눈 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답지는 별도로 추가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자의 소속과 성명, 조사한 날짜와 담화자에 대한 성명, 나이, 부양 여부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담화자의 직업까지 나타나 있다. 담화자들은 주로 남자들이 많았으며 연령은 4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아마 해방 직후부터 생활상의 변화를 담으려고 한 조사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비교적 노년층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든 개별 조사자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역사박물관, 예를 들면 개성, 청진역사박물관의 소속 직원

1) 이 자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준근, “북한지역의 상장례(喪葬禮) 변화 연구—1960년대 민속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온지학회, 『온지논총』, 제39권(2014), 215~218쪽.

이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조사 자료에 나타난 내용만으로 현지조사사업의 세부적인 지침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지조사요강』을 참고로 정리한 조사 지침은 대략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경리(노동 조직, 생산도구, 작물 재배, 수공업, 교통운수, 상업유통 등)와 부락과 물질문화(부락, 공공건물과 주택, 옷, 음식물 등), 가족 및 가족 풍습(가족 구성 및 가족 경리, 가족관계, 문화 수준과 정치적 견해, 결혼, 산아, 아동교양, 장례, 가족명절 등), 사회생활(8·15 전후 농촌의 사회생활, 계급관계의 변화, 정치생활, 명절놀이, 여성들의 사회생활 변화), 문화생활이었다.²⁾

그렇다면 북한 민속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해방 직후 민속학은 민족 정체성 확립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1950년대 들어서 잡지 『문화유산』이 민속과 역사, 문화에 관한 글을 출판하면서 민속학이 수립되었다. 민속 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은 해방 직후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민족문화 복원이 주된 목표였다. 한국 전쟁 이후부터 1967년까지는 사회주의 문화이론이 전면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와 계급 교양이 결합되었다. 이 시기 문화정책은 ‘민족 허무주의’ 경향과 ‘복고주의’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혁명 이전에 가진 모든 것을 봉건적이거나 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잘못을 일컫고, 후자는 지난날의 것을 무조건 되살려 찬미하는 것을 의미했다.³⁾ 1960년대 중반,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이르러 북한은 민속학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방법론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일제 강점기의 왜곡된 민속을 바로잡고

2) 주강현, 『북한민속학사』(서울: 이론과 실천, 1991), 250쪽.

3)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논총』, 53집(2012), 228 ~ 229쪽.

허무주의와 복고주의의 편견을 극복한 것으로 선언했다.⁴⁾ 북한은 민족문화유산 가운데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원칙을 마련했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가려고 노력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민속학 역시 초기에는 학문으로서 민속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영향을 받아 기반을 마련하였다. 잡지 『문화유산』에는 현지 조사 방법론이나 공산주의 건설과 민속학·민속학자의 임무, 과학으로서 민속학 규정 등에 관한 논문이 번역되거나 실리면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방법론과 연구 업적의 토대를 마련해갔다. 1950년대 말까지는 북한에서 민속학의 이론 정립기로 볼 수 있고, 그 이후부터 1967년까지는 민속학의 사회과학적 연구의 초기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⁵⁾ 1950년대 민속학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역사과학’으로서 민속학’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후부터는 ‘역사’와 ‘정치’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민속학 역시 당의 정치철학과 정책 방향에 병행하는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⁷⁾

4) 『고고민속』(1965.4), 4쪽;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213쪽 재인용.

5) 이정재, “북한 민속학 연구의 경향과 특징 연구,” 『한국의 민속과 문화』, 6권 (2002), 116~119쪽.

6) 이 방법론은 『문화유산』에 소련의 과학으로서 민속학 방법론을 황철산이 소개하고 이론적인 비판을 마련했다. 역사과학으로서 민속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주강현, 『황철산민속학』(서울: 민속원, 2014);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117~145쪽.

7) ‘역사’와 ‘정치’의 결합이라는 분석은 다음에서 가져왔다. 서동만, “북한 사회주의에서 근대와 전통,”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서울: 역사비평사, 2000), 365쪽.

3. 사회주의 이행의 근대성

1) 민속에 대한 사회인문학 연구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에 관한 이해는 민속학 연구의 오랜 탐구 주제였다. 이에 대해서 독일 민속학은 사회인문학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도시 사회문화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학문은 뮌헨학과(München school)의 ‘지역 문화에 대한 정확한 역사 기술’과 튀빙겐학과(Tübingen school)의 ‘집단의 일상생활과 정체성’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⁸⁾ 뮌헨학파는 민속자료에 대한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생활의 기본 구조로서 공동체 생활과 가족, 친척, 그 외 공동체 여러 조직의 생활을 결정하는 원칙으로서 생활양식의 차이를 연구했다. 튀빙겐학파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 연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집단의 정체성과 그 형성 배경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시에 형성된 빈민(저소득층)과 노동자, 여성, 청소년 집단, 외국인, 동호회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두 학파는 미시적 접근 방법을 통해 도시 속에 형성된 개별 집단들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변화 양상을 밝히려고 했다.

민속학자 방 주네프(Arnold Van Gennep)는 통과의례를 분리, 전이, 통합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았다. 주네프는 세계 곳곳의 종교 의례에서 볼 수 있는 구조를 통일적으로 제시하면서 장소·상태·사회적 지위·연령 등의 변화에 따른 의례를 가리키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⁹⁾

8) 이상현, “독일 도시민속학의 이론적 체계와 응용성,” 『비교민속학』, 제22집(2002), 448~454쪽.

9) Arnold van Gennep, *Les Rites de Passage* (Librairie Critique Emile Nourry, 1909); A. 반 겐넵(Arnold van Gennep), 『통과의례』, 전경수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00), 41쪽에서 재인용.

첫 단계인 분리는 개인을 이전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단절시키는 상징적 행위를 수반한다. 다음 단계인 전이는 의례의 주체가 이전의 지위나 역할을 벗어버리고 일반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상태 또는 미래로 향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의식주 문제를 의례라는 좀 더 상위의 문화 개념으로 포괄하자면 이러한 전통과 관습은 의식을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형식화되거나 종교적인 미신, 유교적인 또는 도덕적 의례에 사회주의체제의 형식과 정신을 담고자 한 점이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면 인민들은 당과 국가, 사회단체 따위와 같은 조직의 범위 내에서 행동할 뿐이다. 이럴 경우 인민의 행위는 실천적 타성에 불과하고 스스로 한정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화란 사회 이행의 방식이고 근대성은 이 기획과 이행의 성격과 가치, 체계의 총합이다. 이를 주권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달리 표현하면 어떤 공동체와 그 성원 간 권리의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북한에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하나는 봉건 유습과 일제 강점기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모든 형태의 기초 교육은 이 두 가지 국가 의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의 사회주의체제 수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근대성은 탈식민과 사회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노선이었다. 이 근대성은 전근대 공동체 질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는 측면과 사회주의체제에 부응해야 하는 종속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1950년대 들어서 북한은 국가권력과 경제건설의 기본 방향, 철학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형에 대한 근본

적인 논의를 진행했다.¹⁰⁾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민속 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북한의 민족주의 관은 김일성이 ‘주체’를 언급하는 시점과 비슷한 때에 변하기 시작했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은 ‘주체’를 언급했는데, 여기서 그는 한 국가의 보편적인 민족적 특질을 강조했다.¹¹⁾ 다시 말해 ‘조선의 역사’와 ‘지리’, ‘풍속’ 등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일제 강점기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 6·10만세를 민족주의 운동으로 크게 부각시켰다. 물론 이와 같은 민족주의에 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은 사상에서 주체 선언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와 지리, 풍속의 중요성은 사회주의혁명 초기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낡은 유습이었다.

모든 옛것이 낡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면서 인민들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풍습과 민속지 중에서 한민족의 특질을 찾아내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이 소련식 사회주의 근대와는 또 다른 측면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에서 근대와 전통에 대한 해석은 1955년부터 이념적으로 가장 풍부했던 1958년경까지였고, 조선의 “전통을 소련의 질곡에서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북한의 전통을 해석하는 데 ‘역사’와 ‘정치’의 긴장관계는 195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¹²⁾ 하지만 이런 전통은 지방 제일주의나 향토사 연구와 같은 전통의 단절로서 북한 내부에 뿌리를 가진 정치적 분파와는 다른 것이었다.

10) 김성보,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352쪽.

1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67~470쪽.

12) 서동만, “북한 사회주의에서 근대와 전통,” 366쪽.

2) 사회주의 이행과 다종의 근대성

사회주의 이행을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려는 자기형성(self-fashioning) 과정이다. 이전의 관습과는 다르게 창안되는 생활을 의미하고 인민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주의혁명의 일상생활이다. 단적인 예로 일상생활에서 의식주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소통(음식)과 통일(의복), 공존(주거)을 의미한다. 생활의 변화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에서부터 시작한다.¹³⁾ 예컨대 밥을 같이 먹는 행위, 누군가와 음식을 나누는 생활양식은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소통은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1954년 소련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리베라시옹』지에 여행기를 실었다. 여기서 그는 소련 사회를 “개인의 이해관계와 집단의 이해관계가 같았다”라고 선언했다.¹⁴⁾ 사르트르의 이 선언적 표현은 소련이 민주국가라거나 소련을 모델로 삼으려는 뜻이 아니었다. 그보다 그는 소련의 기획, ‘인간들의 희망’이라는 미래의 의도를 강조한 것이었다. 그는 소련에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는 것과 권력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¹⁵⁾ 그의 요점은 건설 중에 있는 사회주의의 이해관계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또 다른 근대에 대한 기획이었다.

사르트르보다 훨씬 앞서 소설가 이태준은 모스크바 기행에서 돌아

13) 허미영, “자기연출·말·몸·음식,”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한울, 2008), 237쪽.

14) *Libération*, 14-20 juillet 1954; 에릭 베르네르(Eric Werner), 『폭력에서 전체주의로: 카뮈와 사르트르의 정치사상』, 변광배 옮김(서울: 그린비, 2012), 143쪽에서 재인용.

15) 에릭 베르네르(Eric Werner), 위의 책, 144~145쪽.

와 기행문을 썼다. 1946년 8월 10일 그는 평양을 떠나 소련을 여행하고 10월 17일에 돌아왔다. 조소(朝蘇)문화협회에서 주관한 이 여행단은 소련군 장성 등을 포함해 모두 27명이었고 농민 대표를 위시해 각계각층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그의 기록 일부다.¹⁶⁾

모든 학비와 의료비는 무료다. 집과 식량, 의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물품은 모두 국가에서 제공한다. 탁아소와 노인요양원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물론 무료이다. 실업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으며 거지도 부자도 없다. 저녁마다 광장과 공원에서 노래와 춤판이 벌어진다.

그가 예찬한 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태준은 트랙터 공장에서 받은 노동현장의 감명을 “공장이란 구차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끌려가 고통스러운 노력을 자본주의에 팔고 있는, 그런 어둡고 슬픈 장소가 아니라 자유스러운 사람들의 창조적 기능이 오직 협조되는, 일대 공동 아트리에임”이라고 느꼈다. 이제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조선인이 갈구하는 국가와 근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모스크바에 있었던 것이다.

1949년 2월 백남운은 북한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했다. 그는 소련 사회주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계급적 대립이 근절된 세계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착취와 압박도 없고 실업도 기아도 공황도 있을 수 없는 인민의 나라”로 규정했다.¹⁷⁾

16) 이태준, 『이태준문학전집 4: 소련기행·농토·먼지』(서울: 깊은샘, 2001). 이 여행에는 작가 이기영과 시인 이찬이 동행했고 1947년 5월 이태준의 ‘소련기행’은 처음 간행되었다. 일기체로 된 기행문에서 이태준은 크렘린궁, 지하철, 프라우다 사옥, 트랙터 공장, 레닌 묘, 아동극장, 오페라 극장, 학교, 고리키 박물관 등을 다니며 본 것을 기록하고 있다.

방기중은 백남운의 이러한 소련 사회 인식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이 증명되었고, 사회주의 발전 방향의 정당성을 재인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인민민주주의가 가야 할 국가건설의 발전 방향이 사회주의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⁸⁾

소련 사회상에 대한 동경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회주의 근대성이다. 근대를 조망함에 있어서 다중의 관점을 갖는 것이 사회주의 근대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서구 이외의 근대성(modernities of outside the West)이라는 측면에서 근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삶과 사유 양식은 아니다.¹⁹⁾ 근대나 근대성은 개별 국가나 정치체제의 기획과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대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환경,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기도 한다.²⁰⁾ 더욱이 이는 근대를 기획하는 집단의 주체와 이를 실천하는 구성원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실천적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동일한 양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논리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문명적 차원에서 근대성을 바라볼 때, ‘다중의 근대성’이라는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 근대성과 서구화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 데

17) 백남운, 『쏘련인상』, 방기중 해제(서울: 선인, 2005), 261쪽.

18) 위의 책, 296쪽.

19) Volker H. Schmidt, “Multiple Modernities or Varieties of Modernity?” *Current Sociology*, Vol.54, No.1(2006), pp.81 ~ 82.

20) 영국과 미국의 자본주의를 자유주의 자본주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비자유주의 자본주의라 체제라고 하는 맥락에서 언급할 수 있다. Kozo Yamamura and Wolfgang Streeck(eds.), *The End of Diversity? Prospects for German and Japanese Capit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2003).

있다.²¹⁾ 서구 유형의 근대성은 역사적인 전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에 기본적인 참조가 되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진정한(authentic)’ 근대성은 아니다.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념으로서 다중의 근대성은 근대성의 역사를 해석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문화적 내용의 다중성을 연속적으로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이야기로 볼 것을 주장한다. 다중의 제도 유형과 이념 유형의 지속적 재구성은 사회·정치적 맥락이나 지식인과 같은 특정한 사회행위자에 따라 상이한 내용의 근대성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근대성에 대한 독특한 이해는 상이한 국민국가 내에서 그리고 상이한 민족과 문화 집단에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근본주의 운동 등 근대 국가의 주요 사회운동으로도 발전했다. 이런 운동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특정한 한 사회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다. 궁극적으로 다중의 근대성에 대한 탐구는 민주주의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48년 국가를 건설한 이후 1960년 초반까지 사회주의체제를 수립 중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국가(state)와 정치체제·정권(regime), 정부(government)는 개념상 분리되어 있으며 그 내용과 형식에서 중첩되어 있기도 하다.²²⁾ 북한의 정부 수립과 사회주의체제

21) 쉬무엘 N. 아이젠스타트(Shmuel Noah Eisenstadt),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 임현진 외 옮김(서울: 나남, 2009), 93쪽.

22)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 나남출판, 1996), 144~145쪽. 국가는 영토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 대외적 주권으로서 제도화를 통해 조직된 물리적 수단의 독점권을 행사한다. 이 국가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적제도와 관료기구를 가지며 이데올로기 차원의 규범적인 질서, 즉 사회의식과 귀속의식이라는 감정과 정서를 강화하는 상징을 창출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정치체제 또는 정권과 정부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안보·질서·복지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능적

형성 그리고 김일성 정권의 구축과 그 실현 과정은 보편적이면서 특수한 경로를 거쳐 왔다. 국가의 알맹이를 채우는 것은 정치 세력들의 각축과 이로부터 결정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의 몫이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체제나 이를 추구하는 정권의 성격은 정치와 행정의 실천적·기능적 측면에 달려 있다.

4. 근대 이행과 일상의 변동

1) 구성원 상호관계의 권리 변화

과거의 유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생활과 가족성원간 관계 변화는 일상의 변혁에서 가장 늦게 이뤄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1946년 7월 3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했다.²³⁾ 이 법령은 여성이 국가·경제·문화·사회·정치생활 영역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재산·토지 상속 역시 같은 권리를 누리며 자유로운 이혼을 가능하게끔 명시했다. 또한 법령은 일부다처제와 여성 매매, 공창, 사창, 기생제도를 금지했

측면과 연관 지어서 일컫는다. 정권(정치체제)은 정부의 직위에 접근하는 경로와 형태,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허용되는 행위자들의 특성, 그리고 이러한 직위에 접근하는 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전략을 규정하는 유형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23) 남녀평등과 여성 해방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서 수정 인용했고 출처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과주: 돌베개, 2012), 369~371쪽.

다.²⁴⁾ 1946년 9월 1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세칙』을 제정해 남녀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여성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인 축첩, 결혼 강요, 창기 영업 등과 같은 제도를 금지한 것이다.²⁵⁾

이에 앞서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은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에서 남녀평등권 실현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⁶⁾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에 관한 조치는 토지개혁에서부터 시작했다. 1946년 3월 5일 발표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그동안 경제적 권리를 갖지 못한 여자에게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토지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²⁷⁾ 1946년 6월에 공포한 노동법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채택했다. 근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게 한 법령 제7조는 “동일한 로동을 하며 동일한 기술을 가진 노력자에게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라고 규정했다.

1948년 김일성은 남녀평등권 법령에 대해 여성들이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되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경제·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²⁸⁾ 이것은

24)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53~54쪽.

25) 한락규, “공화국 형사 립법의 발전,” 『우리나라 법의 발전』(평양: 국립출판사, 1960), 171쪽.

26) 김일성,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323쪽.

27)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 49쪽.

28) 1948년 3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한 보고.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18쪽. 남녀 이혼과 공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남녀 모두의 사상의식을 제고하는 새로운 제도적 규범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내적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북한은 정치적·신체적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이혼, 토지 상속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나갔다.

남녀 간의 관계는 남녀평등법 시행으로 구조적인 귀속성이 마련되었다. 해방 직후 남자의 가장권은 절대적이었다. 북한에서도 한 가정의 “호주는 권한이 컸으므로 여자들이 가정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자식과 부모는 절대적인 복종관계에 있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민족자료의 조사가 이뤄진 1960년대 중반에는 여자들의 권한이 상당히 커져 있었다.²⁹⁾ 부부간의 상호관계에서 가정의 권한은 남성 중심에서 남녀가 동등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 담당하고 있었다.³⁰⁾ 가장권은 농업협동화 이후 가정생활에서 여자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부부 간의 동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다. 약혼도 부모의 강요가 허용되지 않았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었다.

부자간의 관계에서도 “개인 소유의 울타리 안에서 부권이 지배”했으나 이 종속관계가 열어지고 있었다.³¹⁾ 예를 들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동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

동재산 등 가족법 발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조일호, 『공화국 가족법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평양: 과학원출판사, 1957).

29) “강원도 룡림군 남흥리,” 1968년(월일 미상). 이 글에서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간행한 민족자료의 표기는 조사한 지역명과 조사한 날짜로 표기했다.

30) “평안북도 선천군 효자리,” 1961년 9월 3일.

31) “평안북도 박천군 대련리 1반,” 1964년 12월 9일; “평안북도 선천군 효자리,” 1961년 9월 3일.

선시되었다.³²⁾ “가부장의 절대권이 없어지고 아들의 자유가 증대되었으며 약혼도 부모의 강요가 허용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었다.³³⁾ 재산 상속에서도 맏아들에게 주는 가부장적 상속이 없어지고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다.

가정의 권한은 전통적으로 세대주라는 이름으로 전해져왔다. 한 가정의 사례를 보면 이 전통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직후 조부가 있는 집안은 그가 일을 하지 못해도 세대주였다. 그러나 사회개혁이 이뤄지면서 조부가 노동력이 없이 피부양자가 되면 세대주는 아들에게 넘어갔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농장원이면 세대주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인이 세대주가 되었다.³⁴⁾ 부부관계를 보면 경제생활에서 실권은 주부에게 있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자들이 남편에게 얽매어 살던 유습이 없어졌다.³⁵⁾ 남자 중심의 가부장권에 균열이 일어난 것인데, 여기에는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재혼에 대한 생각 역시 크게 변했다. 예사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³⁶⁾ 혼자된 남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처녀와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는 아들딸이 있는 여자와 결혼했다. 문맹퇴치운동으로 글을 배운 여자들이 연애편지를 쓰기도 했다. 이는 사회구성원 특히 남녀 사이의 평등한 인식이 퍼지고 문자를 알게 되면서 나타난 근대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연애편지를 쓰는 여자들을 못 마땅히

32) “평안북도 박천군 대련리 3반,” 1961년 12월 6일.

33) “평안북도 선천군 효자리,” 1961년 9월 3일.

34)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1968년 5월 8일.

35) “강원도 시중군 풍릉리,” 1967년(월일 미상).

36) “황해남도 초도,” 1955년 4월 7일~24일. 초도는 송화군에 속한 섬이다.

여겨 이들이 성인학교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다.³⁷⁾ 연애편지는 그 자체가 낭만적 사랑의 양식이고 동시에 사랑이라는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성의 표현이기도 하다.³⁸⁾ 남녀 사이의 평등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의 수평적 제도화는 근대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지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은 사회적 해방을 통해 이들을 국가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 이는 비단 가정에만 해당하는 평등이 아니었다. 여성들이 생산관계의 노동자로서 계급의식과 그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여성 노동력에 대한 꾸준한 정책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여성의 사상의식을 높이는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다.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사상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문맹을 퇴치하고 일제의 잔재와 낡은 유습을 없애는 것이었다.³⁹⁾ 이처럼 여성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범주로서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의 일상생활은 주거 공간의 이동과 재배치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인민들이 어떤 거주지에서 생활하는가 하는 점도 일상에서 중요하다. 주택의 유형과 구조가 해방 이후부터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장부가 자재와 자금을 대주는 문화주택이 보급되면서 방과 창고, 부엌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⁴⁰⁾ 더

37)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1968년 5월 8일.

38) 에바 일루즈(Illouz Eva),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김희상 옮김(과주: 돌베개, 2013).

39)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 32~33쪽.

40) “함경북도 회령군 원산리 영천,” 1953년(월일 미상).

구나 농업 협동화 이후에는 주택 구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앞채와 모강채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협동화가 되면서 개별 가정에서 경리 시설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⁴¹⁾ 이러한 주거 공간의 변화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남긴 일기에서도 유사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전근대적 일상 속에서 집안의 가구들까지 자리를 바꾸게 하는 소련 당국의 점검에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양태를 발견했다.⁴²⁾ 마을이나 가정에서 사회주의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복속의 전근대성을 타파하고 계급 중심의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였다. 이는 삶의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민속과 공동생활의 변화

강원도 룡림군 남흥리에서 미신타파는 1947~1948년도에 본격 진행되었다. 원구성, 마을돌이, 대감, 성주, 지은 등을 불살랐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빌고 했던 국사당도 없어졌다.⁴³⁾ 문계와 소겨리, 품앗이와 같은 공동생활조직은 남아 있었지만 사당과 시조묘는 없어졌다. 자강도 전천군에서 문계는 1946년경 시조묘와 제사 등을 주관했지만 토지개혁이 실시되면서 문계의 경제적 토대가 없어지고 종종 의 산과 전답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⁴⁴⁾

41) 평안북도 박천군 대련리 3반, 1961년 12월 6일.

42)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발터 벤야민의 모스크바 일기』, 김남시 옮김(서울: 그린비, 2005), 11쪽.

43) “강원도 룡림군 남흥리,” 1968년(월일 미상).

44)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1968년 5월 8일.

미신타파는 문맹퇴치사업과 함께 시작해 1947년경부터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⁴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우제를 지내는 미신행위가 근절되었다. 조사된 자료에 나타난 시기를 보면 1946년부터 문맹퇴치와 미신타파가 시작해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신의 행태를 보여주는 원구성, 마을돌이 대감, 성주, 지은 등을 불살랐다.⁴⁶⁾ 집집마다 성주라고 하는 ‘귀신단지’가 있었고 무당과 복술이 있었고 마을에는 도당이란 것이 있었다. “노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민주청년동맹 회원들이 앞장서 도당나무를 찍어 없애는 식으로 풍습을 바꾸어 나갔다.⁴⁷⁾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성황당, 부락제, 기우제 등은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사라지기 시작해 미신타파운동과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없어졌다. 미신타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는 야학이었다. 부락단위로 세워진 성인학교는 문맹퇴치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조직이었고 협동화 이후에는 근로자 학교로 운영되었다.⁴⁸⁾ 민청원과 여맹원들이 주로 활동하면서 미신은 없다는 것과 허황하다는 것을 교육했다.⁴⁹⁾ 근대로의 이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러한 봉건유습에 대한 합리적 이성의 창출이었다.

45)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1968년 5월 8일.

46) “강원도 룡림군 남흥리,” 1968년(월일 미상); “강원도 시중군 풍룡리,” 1967년(월일 미상).

47) “강원도 시중군 풍룡리,” 1967년(월일 미상).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는 관습이 있었다. “함경남도 회령군 창대리,” 1955년 12월. 이곳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신을 화장으로 처리했는데, 화장터는 특별히 없었고 관이 들어갈 만큼 나무 귀틀을 쌓아 놓고 그 안에 관을 넣어 양쪽 모서리만 빼고 그 위에 다시 나무를 쌓아 화장을 했다.

48) “강원도 룡림군 룡문리,” 1968년(월일 미상).

49) “강원도 룡림군 신창리 1반,” 1968년(월일 미상).

건국사상총동원운동(建國思想總動員運動)에서 비롯된 문맹퇴치는 가장 강력한 사상개조, 정신혁명의 시발점이었다. 1946년 11월초 인민위원회 선거 이후 개최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11월 25일)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체제 건설에 따른 대중운동으로서의 식개혁운동이 필요함을 주장했다.⁵⁰⁾ 이 운동의 구체적인 목적은 인민들이 “새로운 민주조선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조국 건설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서로 돕고 단결하는 인민적 도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⁵¹⁾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식민지 유산인 노예의식을 청산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단체 관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⁵²⁾ 이렇게 시작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애국주의와 더불어 집단주의 원리를 인민들에게 습득하도록 하는 사상개조운동이었다.

김일성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사상의식과 개인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싸울 것을 호소했다.⁵³⁾ 새로운 조국건설에 대한 각오와 함께 장애가 되고 있는 사상적 잔재를 지적하고 또 새로운 국가관을 제시하였다. 그가 개인주의와 향락주의를 아주 거세게 비판한 것은 공동체를 향한 강한 집단주의 호소였다. 김일성의 진술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희생과 집단주의 윤리, 사회의 유기적 일체감 등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 위로부터 시작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단순히 “정신혁명을 넘어 하나의 국민과 인민을 만들기

50) 김일성,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김일성저작집』,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554~555쪽.

51)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249쪽.

52) 이청원,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사회적 근거,” 『인민』(1947.1), 36쪽.

53) 김일성, “북조선 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북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장군 중요논문집』(평양: 로동당출판사, 1948), 159~163쪽.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⁵⁴⁾ 이것은 이북 전역에서 정권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운동이었던 셈이다.

이성의 창출로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정신의 재통합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을 통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 교육 과정은 체계모니 구조 내로 개인들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기초 교육은 주체들을 규범화(또는 정상화, normalization)할 뿐만 아니라 개별 주체들이 사회의 가치와 이상을 담지하도록 ‘개인성’을 제조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육은 순수한 연습 과정이거나 백지 상태에 새겨지는 역량·지식·관념 따위의 습득이 아니다. 그것은 정반대로 기존 개인성의 해체이자 새로운 개인성의 구축이다.⁵⁵⁾ 발리바르는 여기에 덧붙여 기초 교육을 “정신의 재통합(remembrement)이나 재주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분해(demembrement)”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북한에서 교육은 일제강점기의 노예근성과 사대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변화시키는 근대적 정신운동이었다. 인민들은 과거의 낡은 의식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근대의 계급, 집단의식을 요구받았다. 문맹퇴치를 통해 어떤 사상과 인식,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언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특질이다. 언어의 확장이 없이는 그 어떤 인식의 세계도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없다. 인민들은 문자를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북한에서 건설되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와 정치,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상을 일상 속에서 갖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새로 건설하는 북조선 체제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불러일으

54)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서울: 나남출판, 1996), 309쪽.

55)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 『대중들의 공포: 맑스 전과 후의 정치와 철학』, 최원·서관모 옮김(서울: 도서출판b, 2007), 497쪽.

김으로써 또 다른 근대성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에서 협동화 이후의 공동생활이나 가족 형태, 가족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문화 수준, 결혼, 아동교양은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기초였다.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 건설기 농촌에서 중요한 과업은 “조선 인민의 생활에 맞게 내용이 사회주의로 개변된 생활과 풍습을 옹계 발전시키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낡은 생활과 풍습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있었다.⁵⁶⁾ 이런 정책은 관습과 풍속이 가진 역사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근대로 이행하기 위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진보적인 것을 가려내어 혁명에 유익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과 관련한 공동의 모습은 집단적인 형태의 노동에서 볼 수 있다. 공동의 노동 조직으로서 규율을 가진 것은 황두였는데, 집단적 노동의 실패를 찾아 볼 수 있다.⁵⁷⁾ 농민들이 공동으로 노동하는 방법의 일종인 황두(황두)는 평안도 일대에서 유래했는데, 건담(乾灘) 지역에서 20~30명의 농민들이 한 작업 단위가 되어 김매기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노동이었다. 품앗이와 소겨리가 좀 더 작은 규모의 임의적 노동 조직인 것에 비해 황두는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노동을 하게끔 했다.⁵⁸⁾ 공동 노동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황두는 한반도 전래의 상부상조 풍습 중 하나이다. 이 노동 형태가 근대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한 시간 관리와 노동 장소, 노동량을 점검받은 점에 있다. 이것은 특정한 신호에 따라 작업을 개시하고 쉬는 시간과 일을

56) 김신숙, “우리나라 협동조합 농민들의 가족 풍습,” 『북한민속학자료집』(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주장현, 『북한민속학사』, 219쪽에서 재인용.

57) “평안북도 박천군 형팔리(황두에 대하여),” 1961년 12월 4일.

58) ‘황두’의 기원은 평안도·함경도 일대에서 상호부조하는 공동생활조직인 ‘향도’라는 말이 향두로 전이되어 ‘향’이 ‘황’, ‘도’는 ‘두’로 변한 것이다.

마치는 시간, 생산량까지 단체로 규율한 것이다.

토지개혁이 이뤄지면서 마을의 공동생활 조직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생활을 구성하는 옛것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는 공동생활조직으로 문계, 소겨리, 품앗이 등이 있었다. 가족 공동체에서도 공동노력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문계가 1946년까지 존속했는데 시조묘 관리와 제사 등을 주관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면서 문계의 경제토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문계도 사라졌다. 의례는 일상 속에서 재현되어왔고 이는 문화와 풍습으로 오랫동안 삶을 점유해 온 것이었다. 더구나 제례는 가족 공동체의 존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지라는 경제적 토대와 관련해서 바뀌어 가고 있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 살펴본 민속자료는 인민들의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서 직접적인 관찰과 현지 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것은 북한이 위로부터 아래로 진행된 근대의 이행 과정에서 변화하는 생활 풍습을 보여 준다. 사적 영역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의 강한 힘이 인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기획을 달리 표현하면 식민지 시간의 경험을 변형시키고 그 역사를 희석시켜 사회주의 근대의 감각을 심어주려는 기획과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이행은 일상생활의 변동이었다. 프롤레타리아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 제도적 규범과 삶 속에서 나타났다.

북한 사회주의 삶의 측면에서 보면, 민속이라는 생활의 변화는 한편으로 식민지와 전근대의 ‘연속’된 지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단절’하면서 이루어진다. 과거의 생활은 일상에서 지속됨과 동시에 멈추고 현재의 생활은 변화하면서 거듭난다. 이를 좀 더 체제 이행의 성격과 결부지어 해석하자면, 연속되는 과거 생활은 ‘일상의 보수성’이고 새로운 생활은 사회주의혁명의 일상이 된다. 일상의 변동은 이전과는 다른 생활의 생성을 요청한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사라지거나 변형되고 과거에 없었던 것이 새로 출현하는 것이다.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지만, 때때로 사회변동의 실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불확실한 것일 수 있는데, 이는 모순적인 양면을 가진 것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이다.

인민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행위 주체들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 속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일상과 사회주의 근대성이 드러난다. 일상의 연구는 생활의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혁명의 매개와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연속’과 ‘단절’, ‘수용과 저항’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의 혁명은 어떤 생활의 ‘연속’이자 ‘단절’이며 새로운 체제의 이념과 가치를 ‘수용’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혁명이 시작되면 한편의 어떤 생활은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또 다른 한편의 어떤 생활은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새로운 이행이 시작한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 인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근대성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근대로부터 자유·해방이라는 측면과 사회주의체제 이행 과정에 종속적이라는 양면성, 둘째, 전근대와 근대의 차별성 못지않게 연속되는 생활의 중첩성, 셋째, 소련의 근대를 쫓아 따라가려고 한 모방성과 민

족의 특징을 강조한 민속성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끝에서 제시한 결론에 덧붙이자면 이 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소련이 추구한 사회주의 근대성과 북한의 근대성에 대한 비교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성원 호상간의 권리관계 변화는 근대성의 징표로서 충분히 파악 할 수 있었다. 여성들의 가정 내 권리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결혼·재혼·이혼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관계에서 남자와 수평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제례에 있어서 과거의 유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토지개혁과 같은 경제관계의 정착으로 완만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맹퇴치를 통해서 미신을 타파하고 합리적 이성으로 풍습을 이해하게 된 것 또한 근대 이행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과학적인 이성의 교육은 정신 혁명 과정 중의 하나로서, 북한 사회주의에서 정치사상교양의 출발점이었다.

■ 접수: 11월 3일 / 수정: 11월 26일 / 채택: 12월 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조선사회과학원, 『민속조사자료』(미간행).

조일호, 『공화국 가족법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평양: 과학원출판사, 1957).

『고고민속』(1965.4).

2) 논문

김신숙, “우리나라 협동조합 농민들의 가족 풍습,” 『북한민속학자료집』(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김일성,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김일성저작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북조선 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북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장군 중요논문집』(평양: 로동당출판사, 1948).

_____,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이청원, “건국사상동원운동의 사회적 근거,” 『인민』(1947.1).

한락규, “공화국 형사 립법의 발전,” 『우리나라 법의 발전』(평양: 국립출판사, 1960).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젠넵, A. 반(Arnold van Genneep), 『통과의례』, 전경수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0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서울: 나남출판, 1996).

발리바르, 에티엔(Etienne Balibar), 『대중들의 공포: 맑스 전과 후의 정치와 철학』, 최원·서관모 옮김(서울: 도서출판b, 2007).

백남운, 『쓰러진인상』, 방기중 해제(서울: 선인, 2005).

베르네르, 에릭(Eric Werner), 『폭력에서 전체주의로: 카뮈와 사르트르의 정치사상』, 변광배 옮김(서울: 그린비, 2012).

벤야민, 발터(Walter Benjamin), 『발터 벤야민의 모스크바 일기』, 김남시 옮김(서울: 그린비, 2005).

아이젠스타트, 슈무엘 N.(Shmuel Noah Eisenstadt),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 임현진 외 옮김(서울: 나남, 2009).

이태준, 『이태준문학전집 4: 소련기행·농토·먼지』(서울: 깊은샘, 2001).

일루즈, 에바(Eva Illouz),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김희상 옮김(파주: 돌베개, 2013).

주강현, 『황철산민속학』(서울: 민속원, 2014).

_____, 『북한민속학사』(서울: 이론과 실천, 1991).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 나남출판, 1996).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파주: 돌베개, 2012).

2) 논문

김성보,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김종근, “북한지역의 상장례(喪葬禮) 변화 연구—1960년대 민속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온지학회, 『온지논총』, 제39권(2014).

서동만, “북한 사회주의에서 근대와 전통,”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

- 와 ‘근대성’ 비판』(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상현, “독일 도시민속학의 이론적 체계와 응용성,” 『비교민속학』, 제22집 (2002).
- 이정재, “북한 민속학 연구의 경향과 특징 연구,” 『한국의 민속과 문화』, 6권 (2002).
-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논총』, 53집(2012).
- 허미영, “자기연출·말·몸·음식,”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한울, 2008).

3. 국외 자료

- Arnold van Gennep, *Les Rites de Passage* (Librairie Critique Emile Nourry, 1909).
Libération, 14-20 juillet 1954.
- Schmidt, Volker H., “Multiple Modernities or Varieties of Modernity?” *Current Sociology*, Vol.54, No.1(2006).
- Yamamura, Kozo and Wolfgang Streeck(eds.), *The End of Diversity? Prospects for German and Japanese Capit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2003).

Modernity for Socialist Transition of North Korea and Change of Everyday Life

Han, Sunghoon(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pertains the study of North Korea's social history during the 1960s and aims to shed light on the way of life that pursued a socialistic revolution through the dramatic changes the people experienced in their everyday lives. After the liberation from colonialism and during North Korea's formation process of a socialist system and state-building, the way of life or the everyday life makes a dramatic transition. This paper will also attempt to interpret the modernity by analyzing the detailed lives of the North Koreans and will try to see the revolution in everyday life from an internal viewpoint of a socialist system. In addition, this is the study of the process of socialist changing and signifies for modernity experienced by the North Koreans.

After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female influence and right to speak in a family, patriarchal rights had transformed into a mutual, marital relationship. In the mid-1960s, the

old custom of being tied down by the husband had died away. A crack in patriarchal power occurred and the importance of whether one could work or not was apparent. This process of females participating as a category in composing a political community can be seen as a universal phenomenon of a modern state.

The most basic foundation during the transformation to modernity was the creation of rationality of old customs. From 1945 until mid-1960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present in the North Korean people's everyday life can be summed up into four different factors. First is the double-sidedness of the aspect of liberation from the pre-modernity and the subordinating aspect of the socialist system. Second is the continuous overlapping of everyday life as much as the differentiation of pre-modernity and modernity. Third is the imitative nature of following the modernity of the Soviet Union and self reliance of national identity.

Keywords: everyday life, modernity of socialist, social change, folklore, multi modernities